

언론 보도의 여성 혐오 그리고 남성 혐오 분석

언어 네트워크와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합*

함승경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강사**

최지명 연세대학교 언어정보학 박사과정***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배경 및 목적

여성 혐오 남성 혐오와 관련한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해석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으며, 어떠한 담론들이 공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해 가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젠더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사회 구조의 질서와 변동을 이해하고자 했다.

방법

비판적 담론 분석 모델에 따라 담론을 텍스트, 담론적 실천, 그리고 사회적 실천 등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였고, 담론적 실천 분석을 위해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담론의 사회적 실천 분석에서는 경쟁하는 담론들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위해 톨민의 논증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여성 혐오와 관련하여 보수지에서는 페미니즘, 온라인 갈등 등의 담론이 분석되었고, 진보지에서는 구조, 폭력 등의 담론이 분석되었다. 남성 혐오와 관련하여 보수지에서는 혐오, 가해자 등의 담론이 분석되었고, 진보지에서는 여성 혐오, 미러링 등의 담론이 분석되었다. 여성 혐오와 관련한 담론들 간에는 축소 지향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와 반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대립했고 남성 혐오 관련한 담론들 간에는 가부장제와 반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의 및 결론

다양한 개인과 조직을 대변하는 PR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담론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해서 현실을 정의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혐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비판적 담론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

* 2019 한국PR학회 봄철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분석을 추가한 논문입니다.

** First Author: hamseungkyung@gmail.com

*** Second Author: amancio.choi@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kimyw@ewha.ac.kr

문제 제기

2015년 메르스 감염 확산 및 예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르스 갤러리’에서 여성 혐오 표현들이 생산되고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여성 사용자들이 남성 혐오의 표현들을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고 확산시켰다. 남녀 혐오 갈등이 고조되자 게시판 사용이 제재되었다.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메르스 갤러리’의 여성 이용자들은 ‘메갈리아’ 사이트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2016년 강남역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초기에는 일반적인 살인 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지었지만,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추모 행동이 확산되면서 단순 범죄와 여성 혐오 범죄 간의 갈등 구도를 만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어서 2018년 홍대 누드모델 사건이 발생했다.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가 몰래 촬영되었고, 이 사진이 워마드에 게시되면서 남성 모델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10여 일만에 여성 용의자가 체포되고 압수 수색과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발부되면서 성별에 따른 편파 수사 여론이 확산되었고, 워마드에서도 혐오가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슈들과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혐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PR 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 모델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탐색하고,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우리 사회의 젠더와 혐오를 둘러싼 인식의 지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PR 커뮤니케이션의 수사학적 접근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주장이 자신을 옹호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하면서 공동체의 합의를 만들어 간다고 본다(Kruckeberg & Starck, 1988). 하지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주체들이 논쟁을 통해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는 타협할 수 없는 의견의 차이(Dozier & Lauzen, 2000)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의 선을 향한 균형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된다. 하지만 담론은 힘의 불균형 또는 권력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는데, 담론의 주체들은 담론 경쟁을 통해 서로 다른 의미와 해석들을 만들어 내면서 담론의 체계모니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다(Kim, 2013).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담론 경쟁 모델에 근거해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와 관련한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해석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으며, 어떠한 담론들이 공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해 가는지를 탐색해 보려고 한다.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2, 1995)는 담론을 텍스트 분석, 담론적 실천 분석, 그리고 사회문화적 분석 등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면서, 담론과 사회 구조, 이데올로기, 권력 관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 분석의 틀에 근거해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우리 사회의 젠더와 혐오를 둘러싼 인식의 지형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젠더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사회 구조의 질서와 변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

담론 경쟁과 비판적 담론 분석

반 룰러와 버식(van Ruler & Vercic, 2005)은 PR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커뮤니케이션 접근과 조직 경영 접근으로 구분하면서 정보 제공, 설득, 관계 지향, 그리고 담론 모델 등 네 가지 이론을 제시했다. PR 이론을 조직 경영 접근과 대칭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PR 커뮤니케이션의 수사학 접근과 비판적 접근이 대표적이다. PR 커뮤니케이션의 수사학적 접근은 설득에 근거한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논쟁의 시장에서 다수의 주장들이 경쟁하면서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 가는 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가진다(Heath, 2001).

수사학적 접근에서 주요한 개념 중 하나가 공동체주의이다. 공동체주의는 다양한 주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ruckeberg & Starck, 1988). 다양한 주체들은 주장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하면서 공동체의 합의를 만들어 간다. 하지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주체들이 논쟁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은 현실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의견의 차이(Dozier & Lauzen, 2000)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된다.

PR 커뮤니케이션의 비판적 접근은 쌍방향 균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추구가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헤게모니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Roper, 2005). 이러한 비판적 접근은 PR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불합리와 권력의 불평등을 극복을 위한 PR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각을 통합하여 PR 커뮤니케이션을 조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담론 경쟁 접근이다. 담론 경쟁으로서 PR 커뮤니케이션은 이슈를 둘러싸고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주체들 간의 담론 경쟁을 통해 공중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대안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Kim, 2012).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2)에 따르면 담론은 단순한 개인적 활동이 아니고 언어 사용을 통한 사회적 실천으로 본다. 담론은 표현의 방식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행위의 방식이다. 담론은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주체들의 지위를 구성한다. 담론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지식과 신념 체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담론의 기능은 언어의 정체적 기능, 관계적 기능, 관념적 기능으로 설명된다. 페어클라우는 담론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면

서 담론과 사회적 구조 간의 관계에서 결정론적 시각을 경계하였다. 그는 담론과 사회적 구조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담론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론은 개인적 행위를 넘어서 정치와 이데올로기 실천의 한 방법이다(Fairclough, 1992, 1995). 정치적 실천으로서 담론은 권력 관계, 그리고 권력 관계가 형성한 계급, 공동체, 조직 등의 집단적 실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실천으로서 담론은 권력 관계에서 담론이 갖는 현실의 의미들을 구성하고, 일상화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킨다. 따라서 담론 경쟁은 지배 담론에 도전하는 대항 담론을 구성해 서로 대립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헤게모니를 얻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중과 의미 공유를 이끌어 내는 담론이 헤게모니를 확보하게 되며, 담론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받은 담론이 현실을 정의하게 된다(Gordon & Pellegrin, 2008),

담론을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던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2, 1995)는 담론을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는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모델을 제시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어휘, 문법, 결합, 텍스트 구조 등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분석의 요소들은 상향적 차원을 이루는데, 문법은 어휘들이 결속되는 방식을 다루고, 결합은 구나 문장 단위의 결합 방식을 다루며, 텍스트 구조는 문장이나 구의 결합을 분석하게 된다. 어휘 분석의 초점은 선택 가능

한 단어들과 그 단어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시위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는데, 텍스트 분석은 경험의 영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언어로 재구성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두 번째 초점은 단어의 의미와 갈등 또는 경쟁 속에서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논쟁되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유적 측면으로, 특정한 은유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 중요성을 분석하게 된다. 결합(cohesion)은 구가 어떻게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어떻게 더 큰 단위로 확장되면서 텍스트 구조를 이루는지를 분석한다. 텍스트 구조는 텍스트의 요소와 에피소드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사의 경우 대제목, 소제목, 본문 등으로 구성되는 텍스트 구조의 관습 등을 분석해서 텍스트 내에서 지식, 신념,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담론적 실천 분석은 텍스트의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을 통해서 담론과 사회 인지적 요인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분석한다. 텍스트는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다르게 소비된다. 이것은 그것들에 적용되는 해석적 작업의 문제이다. 텍스트 생산과 해석에 사회인지적 자원들이 개입된다. 담론 참여자들은 내재화된 사회적 구조, 규범, 관습 등을 통해서 텍스트를 처리하고 해석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은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와 같은 사회문화적 실천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담론적 실천 분석은 이러한 제한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담론적 실천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이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다(Bakhtin, 1981, 1986). 담론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며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상호 텍스트성을 형성한다. 담론 요소들 간의 결합으로서 상호 텍스트성은 관습적으로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담론 요소들 간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구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성 혐오’ 담론은 ‘여성 혐오’ 담론에서 ‘여성 차별’ 담론을 탈접합시키고 ‘남성 차별’ 담론을 재접합시킴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이룬 담론이다.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성 혐오 표현은 여성 혐오와 동일한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여성 혐오’ 담론에 내재한 요소로서 젠더를 여성에서 남성으로 치환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담론 주체들은 담론 요소들 간의 접합과 탈접합을 통해 상호 텍스트성을 구축하면서 이데올로기를 일상화시키는 담론적 실천을 형성해 간다.

담론의 사회적 실천은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Fairclough, 1992, 1993, 1995). 담론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 등과 연관된다. 이데올로기의 실천으로서 담론은 다양한 권력 관계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관습화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킨다. 정치적 실천으로서 담론은 권력 경쟁의 장일 뿐 아니라 권력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권력을 향한 헤게모니 경쟁은 담론을 관습적이거나 창조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데올로기를 일상화시킨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 분석은 텍스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탈일상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밝히는 것이다(Wodak & Meyer, 2001).

혐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발언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혐오(disgust)는 죽음, 부패, 그리고 질병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오염물과 같은 역겨운 대상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불쾌감이다(Rozin, Haidt, & McCauley, 1999). 혐오는 어떤 대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욕구 이면서 어떤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이다. 이처럼 혐오는 부정적인 감각 경험과 관련되지만, 기피나 위협과 구별된다(Nussbaum, 2010). 같은 대상이라도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다른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기피와 다르다. 혐오는 위협과도 구별되는데. 위험한 독약은 옆에 둘 수 있지만, 혐오스러운 대상은 그렇지 않다.

혐오는 자신의 몸 안과 밖이라는 경계와 관련이 있다(Rozin et al., 1999). 혐오는 문제가 있는 물질이 자신의 체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길 때 생기게 되는데, 혐오스러운 것은 이질적인 것이다. 몸의 부산물이 신체에서 나오면 혐오를 유발하지만, 몸 안에 있는 경우는 혐오스럽다고 여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인간이 아닌 동물, 또는 우리가 지닌 동물성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과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혐오는 인간이 지닌 동물성의 유한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를 사회적 관계로 확장시키게 되면,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 방해하는 타자를 거부하는 감정이 된다(Kim, 2017). 죽음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자아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나를 타자화하는 것이 자기혐오인데, 이러한 자기혐오로부터 벗어

나고,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타자 혐오이다(Nussbaum, 2010). 이처럼 사회적 관계에서 혐오는 사람이나 대상을 서열화해서 특정한 대상을 저급하고 열등한 것으로 간주한다(Miller, 1997). 혐오는 사회적 관계에서 지배-피지배의 위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감정으로 기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들에게 악취, 부패, 불결함 등의 혐오적 속성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결부시켜 왔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황폐화로 인해 독일인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혐오적 특성을 투사했다. 투사적 혐오는 규범적 차원에서 비이성적이고 낙인과 위계와 연관되어, 특정 집단을 적대하고 배제시키는 논리에 동원된다(Nussbaum, 2004). 이처럼 투사적 혐오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위계질서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에 해악을 준다.

타자를 평가절하하거나 멸시 또는 폄하함으로써 관계에서 우위를 갖고자 할 때, 더 나아가 자신의 의지 아래 복속시키려고 할 때, 혐오감은 지배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Shin, 2017). 그리고 혐오가 지배 질서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매우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성 혐오(misogyny)이다. 길모어(Gilmore, 2010)는 여성 혐오를 가부장제 역사와 제도가 만들어 낸 관행, 언어, 태도, 감정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우에노(Ueno, 2010)는 여성 혐오를 남성이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규정했다. 세지윅(Sedgwick, 1985)은 여성 혐오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멸시뿐만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방식의 여성에 대한 타자화로 정의했다. 여성 혐오는 혐오라는 감정보다는 그것이 작용하는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차별과 권력 구조에 따른 것이지 개인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 혐오는 가부장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Ueno, 2010). 여성은 미완성이고 완전하지 못하고 훼손된 존재로 규정하는 가부장제(Lerner, 1993)는 여성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가부장제에 근거한 여성 혐오는 2015년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등장했는데, 왜 하필 가부장제가 공고했던 과거가 아니라 2015년이었을까? 윤보라(Yun, 2013)는 여성 혐오가 스스로를 잉여라 조롱하는 루저 문화가 남성성을 해체하면서, 이들의 패배감이 투영된 극단적인 한국 사회가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타자화하고 범주로 표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베의 여성 혐오는 남성이 겪는 불안과 공포가 한계에 달했을 때 여성을 전면적으로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해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수아(Kim, 2015)는 최근 한국 남성의 남성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리는 평등 개념의 전유 및 재구성 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남성과 여성의 권리와 책임에 차별을 두지 말자는 주장은 평등의 논리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며, 차이를 거부하는 평등은 성별 권력 구조와 가부장제의 문제, 사회 구조적·역사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 담론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무책임을 묘사하는 여성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여성들은 여성 혐오에 문제 제기를 해 왔으나, 그 대응 방식에 있어서 ‘무시’도 하나의 방법이였다 (Kim, 2017). 여성들이 여성 혐오를 무시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제기된다. 외설적인 표현의 대상이 된 여성들은 두려워서, 또는 화자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편으로, 또 일부는 수치심에 기인해서 무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김치녀나 된장녀 등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간주하거나,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 혐오에 대한 반발이 현저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메갈리안들의 등장이다. 메갈리아의 이용자들은 메르스 감염 이슈에서 남성 감염 확진자에게는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여성 음성 판정자가 낙인과 폄하의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혐오의 대상을 남성으로 대체하는 미러링(mirroring) 효과를 만들어 냈다.

윤지영(Yun, 2015)은 메갈리안들이 사용한 김치남, 숨쉴남, 씹지 등의 언어는 남성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메갈리안들의 언어에는 여성 숭배와 남성 혐오의 이분법적 기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메갈리안들의 언어는 여성 숭배의 질서를 강화,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질서를 해체하려는 탈봉합의 언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갈리안들의 언어는 남성을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서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남근 질서에 대한 분노 또는 여성 혐오에 대한 분노에 근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종렬(Choi, 2018)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메갈리안들의 언어가 여성 혐오를 미러링하는 것도 아

니라고 주장했다. 최종렬에 따르면 여성 혐오는 상징적 분류 체계의 산물로, 우등 가치화와 열등 가치화의 이분법의 상징적 분류 체계 속에서 여성을 열등 가치화된, 즉 오염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메갈리안들의 언어는 이러한 이분법적 상징적 분류 체계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 혐오라는 유의미한 사회적 행위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따라서 메갈리안의 남성 혐오는 ‘단순 혐오’의 언어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순 혐오로서 ‘남성 혐오’는 종종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Johson, 2005). 남성을 혐오하는 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남성을 혐오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혐오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반남성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지 않는다(Gilmore, 2010). 여성들이 제기하는 남성 혐오(misandry)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간주하는 여성 혐오의 경험에 근거한다. 이렇게 남성이라는 지배 집단을 혐오하는 것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을 혐오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개별적인 남성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지배적 지위, 전통적인 남성 역할, 마초적 문화, 성 이데올로기를 혐오하는 것이다. 위마드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의 남성 혐오 표현을 분석한 박대아(Park, 2018)는 남성 혐오 표현이 목표로 하는 혐오의 대상은 한국 남성 그리고 한국 사회라고 주장했다. 남성 혐오 표현이 비하, 조롱, 공격하는 것은 개별 남성이 아니라 한국 남성 일반이라는 것이다.

연구문제와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페어클라우가 제시한 비판적 담론 분석의 틀에 근거해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와 관련한 담론들을 분석했다. 먼저,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전체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고,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각각의 담론적 실천 분석, 그리고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담론을 분석하였다. 담론의 텍스트 분석은 잠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4대 일간지에서 생산된 혐오 관련 보도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기사들의 잠재적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는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각각의 텍스트에서 의미 중심을 이루는 단어들을 파악해서 담론을 도출하고, 담론들 간의 접합, 탈접합을 분석해서 담론의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는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와 관련된 담론들 중 경쟁하는 담론들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파악해, 여성 혐오, 남성 혐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세계를 비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문제 1: 혐오(여성 혐오, 남성 혐오)에 관한 보도 텍스트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연구문제 2: 여성 혐오, 남성 혐오에 관한 보도 담론들은 무엇이고, 담론적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보도 담론들의 사회적 문화적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 자료 수집 및 처리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데이터 수집의 시작점을 2015년 1월 1일로 잡은 것은 남성 혐오를 키워드로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연도가 2015년이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 및 언어 처리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을 이용하였다. 수집 소스는 포털 사이트인 다음(Daum) 뉴스 서비스를 통해 신문사별(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로 수집하였다. 각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기사 서비스와 다음 등의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 서비스 간 기사의 수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집한 신문사별 기사 수 및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 수와 각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기사 수는 비슷한 분포(진보와 보수 간 기사 차이, 신문사별 기사 수)를 보여 다음 포털에서 수집한 기사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먼저 ‘혐오’를 키워드로 하여 기사를 수집 후 거기서 ‘여성 혐오’ 혹은 ‘남성 혐오’라는 복합어가 정확히 포함된 기사만 추출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혐오’가 포함된 기사 수는 6697개이며 ‘여성 혐오’ 또는 ‘남성 혐오’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의 수는 1969건으로 나타났다. 1969건 중 진보지는 1278건, 보수지는 691건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혐오’만 사용된 기사 수는 총 1773개로 나타났는데, 보수지

가 539개, 진보지가 1234개로 분석되었다. ‘남성 혐오’만 사용된 기사 수는 전체 365개로 나타났고, 보수지는 234개, 진보지는 131개로 분석되었다. ‘혐오’와 ‘여성 혐오’를 포함하는 기사는 진보지가 보수지보다 많았지만, ‘남성 혐오’를 포함한 기사는 보수지가 진보지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2, 1995)가 제시한 비판적 담론 분석 모델에 따라 담론 분석을 텍스트, 담론적 실천,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 등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였고, 담론적 실천 분석을 위해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담론의 사회적 실천 분석에서는 경쟁하는 담론들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위해 톨민의 논증법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분석

텍스트 분석을 위해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정보에 숨겨진 주제들을 추론하기 위해 고안된 통계적 추론 기법이다. 통계 알고리즘을 통해 구조화되지 않은 빅데이터에서 핵심 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Steyvers & Griffiths, 2007). 토픽 모델링 분석 중에서 확률 모형을 기반으로 텍스트의 주제를 찾아내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적용하였다(Griffiths & Steyvers, 2004).

LDA는 문서 집합 내의 모든 개별 문서들이 특정한 수(k)의 토픽들(topics)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

고, 각 토픽은 문서 집합의 어휘 집합(vocabulary)을 이루는 모든 단어들이 해당 토픽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확률적 분포로 구성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k는 숨은 변인(hidden variable)의 수로서, 전체 문서 집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로 정하는데, 반복적인 모델 구성을 통해 여러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이 모델들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값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k 값의 결과를 검토해 연구자의 직관적 판단에 의해 적절한 값을 찾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는 100개의 주제가 적절하다고 분석되었지만, 100개의 주제는 수집된 전체 데이터 1969건에 비해 주제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k값을 20, 30, 50 등의 모델을 구성해 분석한 결과, 30으로 분석했을 때 혐오와 관련한 주제가 다른 값들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하였고, 30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담론적 실천 분석

언어 처리는 수집된 기사에서 불필요한 텍스트(사진 캡션, 기자 이름, 표 등)를 제외한 후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여 각 단어에 해당 품사를 부착하였다. 이때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신조어(예: 위마드, 메갈리아 등) 등은 후처리 단계를 통해 오류 수정하였다.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포함한 전체 혐오 텍스트의 잠재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토픽 분석에서는 모든 품사의 전체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는 명사만을 추출했고, 추출된 명사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50개를 추출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 데이터에서는 ‘혐오’ 기사에서

는 혐오, ‘여성 혐오’ 기사에서는 여성 혐오, 그리고 ‘남성 혐오’ 기사에서는 남성 혐오를 제외하고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때, 곳, 시 등의 의존 명사를 제외하였다. 추출된 빈도수 높은 단어들을 통해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사×단어로 구성되는 행렬로 만들었다. 이후, UCINET 프로그램을 통해 행렬을 전치하여 단어×단어 행렬로 변환하여, 단어들의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centrality)은 특정한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Lee, 2014). 이후 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UCINET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적 등위성 분석 중의 하나인 수렴 상관관계 분석(CONCOR)를 실시했다. 중심성 분석이 단어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분석법이라면 구조적 등위성 분석은 단어들과의 관계 패턴의 유사성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이다(Newmann, 2010). 수렴 상관관계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 분석 중 피어슨 상관관계에 근거해서 단어들과의 연결 패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으로(Wasserman & Faust, 1994), 집단 구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렴 상관관계 분석의 집단 구분은 분할 횟수(depth of splits)에 따라 군집의 수가 결정되는데, 이 연구의 연결망 노드인 단어 수가 50개인 것과 분석 기간이 4년이며, 분석 기간을 세분화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분할 횟수를 3회로 정하고 8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담론을 도출하였다.

담론적 실천 분석은 담론의 구성 요소 간의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해 담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담론의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접합(articulation)이다(Fairclough, 1992, 1993, 1995). 담론의 접합은 특정한 상황에서 담론 요소들 간의 결합 형태로, 담론을 관습화하며 담론 자체의 통일성을 갖게 한다(Hall, 1986). 그러나 담론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접합은 결정적이거나 변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담론의 체계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구성되면서 다시 통일성을 획득해 간다. 이 연구에서 담론적 실천에서 도출된 담론들 간의 탈접합을 분석해 담론의 체계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담론 전략을 파악하였다.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은 담론들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기 위해 툴민(Toulmin, 1958/2006)이 제시한 논증 분석 모델을 적용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 담론적 실천 분석을 통해 여성 혐오, 남성 혐오 각각 보수지와 진보지에서 경쟁하는 담론을 파악하였다. 이후 2) 보수지와 진보지의 경쟁하는 담론들을 툴민의 논증 모델에 따라 근거(data), 논거(warrant), 주장(claim)의 요소로 분리하여 분석했다. 툴민은 주장은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논거에 의해 주장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주장은 각 담론의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진술로 조작화했다. 근거는 담론을 구성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사실, 증거로 조작화했다. 논거는 근거와 주장 사이를 잇는 논리적 연결로, 근거에 따른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제로 조작화했다. 톨민 논증 분석에서 논거는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부분이다. 3) 톨민의 논증 분석을 통해 답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거로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인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4) 대립 또는 경쟁하는 답론이 내포하는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을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와 논의

혐오 보도 텍스트 분석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포함된 기사 1969건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k 값을 30으로 설정하고 모델링하여 30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주제에서 가장 확률적 분포가 높은 순으로 전체 어휘를 나열하여, 순위가 높은 어휘들을 분석해 해당 주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명명하였다.

분석된 30개의 주제는 영화와 드라마, 방송과 프로그램, 문학, 워마드와 몰카, 집회와 시위, 여성과 외모, 성차별, 정부와 정책, 댓글, 트럼프, 페미니즘, 여성 혐오, 생각과 사람, 사회와 문화, 정치와 대통령, 광고와 사진, 자신과 문제, 성폭력, 아이와 엄마, 혐오와 표현, 글과 사진, 힙합, 뉴스와 기자, 경제, 의원과 여성, 여성과 죽음, 학교와 학생, 사건과 범죄, 사람과 말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포함하는 혐오를 키워드로 생산된 기사들에서 혐오는 영화, 방송, 힙합, 뉴스, 문학 등

매체와 문화 콘텐츠에 나타난 혐오, 성폭력, 살인, 몰카를 포함하는 성범죄, 언어와 관련된 폭력 등 폭력으로서의 혐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치 지도자들의 혐오에 대한 태도 등의 측면에서 혐오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0개의 주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건과 범죄, 생각과 사람, 워마드와 몰카, 자신과 문제, 사회와 문화, 여성 혐오, 글과 사진, 혐오 표현, 댓글, 문학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아우르는 혐오의 문제는 강남역 살인 사건, 홍대 몰카 사건 등의 사건으로서 제시되거나, 인터넷 상의 혐오 표현, 댓글, 문학 등 표현의 문제로 제시되거나, 사회와 문화, 자신과 문제 등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주제들이 혐오와 관련된 주요 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별로 30개 주제의 비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30개의 주제를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별로 분석한 결과, 보수지에서는 글과 폭행, 사건과 범죄, 댓글, 워마드 등의 주제가 진보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진보지에서는 생각과 사람, 자신과 문제, 정부와 정책, 집회와 시위, 문학, 메갈리아와 미러링, 페미니즘, 혐오 표현 등이 보수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보수지는 진보지보다 혐오의 문제를 폭행, 사건, 온라인 댓글, 워마드 등 사건과 인터넷 상의 댓글 논란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비중이 높았고, 진보지는 보수지보다 존재의 문제, 정책, 집회와 시위 그리고 댓글 등의 주장과 표현의 문제로 접근하는 비중이 높았다.

Table 1. Proportion of topic analysis

topic	conservative	progressive
advertising photography controversial media	0.031831	0.0305
violence, event, police, petition	0.069528	0.019346
articles, reporters, news, reports, trends	0.021342	0.031708
high, economy, many	0.031428	0.031162
broadcasting, program, appearance, words, drama	0.030484	0.023964
event, crime, spirit, murder, memory	0.061481	0.044374
people, home, when, start, time	0.027428	0.030668
society, generation, culture, history, politics	0.020374	0.049814
Sanyi, write, comment, controversy, post.	0.05778	0.021258
think, person, there is, same	0.039527	0.053279
gender discrimination equality human rights minority	0.022852	0.034368
sexual assault, victim, violence, damage, perpetrator	0.026572	0.035961
child, mother, daughter, marriage, husband.	0.02684	0.029532
there is, self, problem, existence	0.028	0.050184
women, men, misogyny, words, society	0.037104	0.039709
women, men, words, friends, same.	0.028397	0.030538
woman, die, world, deceased	0.024657	0.026646
film, director, work, actor, hero	0.021063	0.030852
Womad, investigation, photo, police, shooting	0.08092	0.027657
member of parliament, treat, president, criticize	0.033445	0.027207
government, policy, law, commission, country	0.026902	0.036891
politics, president, candidate, representative	0.022977	0.028741
rally, protest, citizen, open, square,	0.02936	0.036237
book, writer, fiction, literature, read,	0.028168	0.037014
community, Megalia, game, mirroring	0.028759	0.031361
Trump, president, candidate, republican	0.035436	0.028025
feminism, women, feminists, movement	0.022456	0.038553
School, student, education, teacher, university	0.028799	0.031593
disgust, expression, social, discrimination, minority	0.02555	0.03964
hiphop, lyrics, music, song, group	0.03054	0.023219

Table 2. Centrality analysis

	Misogyny		Misandry	
	conservative	progressive	conservative	progressive
1	words	incident	site	problem
2	male	social	female	female
3	social	self	molka	discrimination
4	person	male	posts	society
5	problem	people	picture	misogyny
6	think	spirit	partiality	online
7	discrimination	human rights	situation	perpetrator
8	violence	discrimination	society	words
9	book	politics	community	deceased
10	feminism	feminism	investigation	incident
11	incident	words	incident	feminism
12	self	violence	controversy	myeongbok
13	posts	speech	misogyny	violence
14	crime	problem	police	people
15	movement	citizen	contents	mirroring
16	expression	victim	assembly	feminist
17	student	reason	words	crime
18	politics	crime	internet	movement
19	fact	posts	onlince	reason
20	reason	film	movement	education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담론들과 담론적 실천 분석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담론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요 단어들과 중심성 분석

주제 분석을 통해 전체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파악한 후,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 본격적으로 담론을 도출하고 담론의 상호 텍스트성을 파악하였다. 담론

적 실천 분석을 위해 전체 텍스트를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그리고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지와 진보지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각각의 그룹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추출하였고,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혐오’가 포함된 보수지 기사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남성, 사건, 사회, 글, 사

람, 논란, 말, 차별, 페미니즘, 자신, 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지 기사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사회, 남성, 사람, 문제, 말, 사건, 페미니즘, 차별, 자신, 운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혐오’가 포함된 보수지 기사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여성, 글, 사진, 경찰, 사건, 사이트, 수사, 사회, 몰카, 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지 기사에서는 여성, 사회, 여성 혐오, 사람, 페미니즘, 문제, 사건, 말, 차별, 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어들 간의 연결 정도로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해 의미 구조를 분석하고자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혐오’가 포함된 기사에서 사용된 빈도수가 높은 50개 단어들의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보수지에서는 말, 남성, 사회, 사람, 문제, 생각, 차별, 폭력, 책, 페미니즘 등의 순으로 단어들의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보지에서는 사건, 사회, 자신, 남성, 사람, 정신, 인권, 차별, 정치, 페미니즘 등의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혐오’가 포함된 기사에서 사용된 빈도수가 높은 50개 단어들의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보수지에서는 사이트, 여성, 몰카, 글, 사진, 편파, 상황, 사회, 커뮤니티, 수사 등의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지에서는 문제, 여성, 차별, 사회, 여성 혐오, 온라인, 가해자, 말, 고인, 사건 등의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수와 중심성 분석 결과에 근거하면, 보수지에서는 ‘여성 혐오’를 차별, 폭력, 사건 등을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있었고, 반면에 진보지에서는 인권, 차별, 정치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있었다. ‘남성 혐오’는 보수지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특히 (홍대 남성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중심을 이루었다. 반면, 진보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여성 혐오와 대비되는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었다.

여성 혐오 담론들과 담론적 실천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는 보수지와 진보지로 구분해 양측이 여성 혐오, 남성 혐오에 관해 구성한 담론을 도출하였고, 담론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한 담론들 간의 상호 텍스트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보수와 진보 일간지들에서 분석 시기별 최빈 단어 50개를 추출해 수렴적 상관관계(CONCOR)를 분석해서 각각 8개의 담론을 도출하였고, 언론의 정치적 성향별로 담론들 간의 접합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성 혐오가 포함된 보수지의 기사에서는 남성·차별·사회·페미니즘·페미니스트·문제 등으로 구성된 ‘페미니즘’, 수사·논란·글·온라인·일베·결과·사진·폭행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갈등 담론’, 범죄·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사건 담론’, 이야기·문화·사람·자신 등으로 구성된 ‘혐오와 콘텐츠 담론’, 책·작가·대표·교수 등으로 구성된 ‘혐오와 서사담론’, 의원·국민·정치·장관 등으로 구성된 ‘정치 담론’ 등이 도출되었다. 반면, 진보지의 기사에서는 사회·남성·사람·페미니즘·차별·운동·평등·영화·글·논란·작가·대상·인권 등으로 구성된 ‘구조 담론’, 성폭력·폭력 등으로 구성된 ‘폭력 담론’, 범죄·사건·피해자·살인 등으로 구성된 ‘사건 담론’, 정치·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민운동

담론, 소수자·표현·발언·교수 등으로 구성된 ‘인권 담론’, 그리고 학생·학교·아이·교육 등으로 구성된 ‘교육 담론’ 등이 도출되었다.

보수지에서는 여성 혐오 논쟁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는 페미니즘 현상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페미니즘 담론’을 구성하였다. 여성 혐오를 촉발시키고 확산시킨 강남역 살인 사건, 부산의 묻지 마 여성 폭행, 이수역 사건 등 ‘사건과 사고’에 집중하였다. 여성 혐오 논쟁을 ‘온라인 갈등’으로 규정하였고, 영화, 대중음악, 문학 작품 등의 ‘문화’ 콘텐츠에서의 벌어지는 여성 혐오 논쟁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누드화 전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여성 혐오 등을 다루면서 ‘정치인 또는 정치’와 관련된 여성 혐오 논란에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보수지는 여성 혐오 논란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갈등 또는 페미니즘 운동으로 이해하였다.

진보지에서는 여성 혐오 논쟁을 차별과 불평등의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접근하면서,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재생산되는 것을 비판하거나 여성 혐오 사회를 비판하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출현에 주목하는 ‘구조’ 담론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여성 혐오 논란을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조명하였고, 차별과 폭력으로서 여성 혐오를 소수자 인권의 문제까지 확장시켰고, 차별과 폭력에 근거하는 여성 혐오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더불어 교육 현장에도 존재하는 여성 혐오를 비판하였다. 보수지에서는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한 정치성을 정치인들의 관련 또는 행위에서 조명하였다면, 진보

지에서는 여성 혐오 논란을 여성들의 정치적 행위로 접근하였다. 보수지와 동일하게 여성 혐오와 관련한 범죄를 ‘사건’의 측면에서도 조명하였다.

담론적 실천은 담론들 간의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담론의 체계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담론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보수지와 진보지에서 구성된 담론들 간의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하기 위해 담론들 간의 탈접합을 분석하였다. 보수지에서는 페미니즘, 온라인 갈등, 혐오 문화, 혐오 서사 등의 담론을 구성하여 여성 혐오 논란을 개별적 측면에서 조명하였지만, 진보지에서는 보수지에서 제기하는 페미니즘, 온라인 갈등, 혐오와 콘텐츠, 혐오와 서사 담론을 접합시켜 통합 담론으로서 ‘구조 담론’을 구성했다. ‘구조 담론’은 여성 혐오가 여성 차별적 구조에 근거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적 구조에서 생산된 대중문화 콘텐츠와 문학의 서사가 이러한 구조를 재생산하면서 온라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담론이다. 보수지는 여성 혐오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시민운동과 정치인의 정치성을 포괄하는 ‘정치 담론’을 구성했지만, 진보지에서는 ‘정치 담론’에서 정치인의 정치성을 탈접합시키고 시민운동으로서 여성 혐오 논란을 조명하는 ‘시민운동 담론’을 구성하였다.

여성 혐오와 관련한 보수지와 진보지 담론들의 담론 전략을 분석한 결과 보수지는 여성 혐오 논란을 페미니즘, 갈등, 콘텐츠와 서사 등 다양한 담론을 통해서 여성 혐오 논란이 일고 있는 개별적 사건에 집중하는 개별화 전략을 보였고, 진보지는 여성 혐오 논란을 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그 구조에서 재생산되는 문화까지를 비판하는 포괄적 전략을 취

하였다. 종합해 보면 보수지는 여성 혐오 논란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는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려고 했고, 진보지는 여성 혐오 논란을 메르스 사태, 강남역 살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사건을 통해서 촉발된 여성 차별적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와 문제제기로 규정하려고 했다.

남성 혐오 담론들과 담론적 실천

남성 혐오가 포함된 보수지에서는 여성 혐오·온라인·차별·페미니즘·댓글·운동 등으로 구성된 ‘혐오 담론’, 폭행·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된 ‘가해자 담론’, 시위·집회 등으로 구성된 ‘위력 담론’, 사이트·게시물 등으로 구성된 ‘극혐 담론’, 처벌·피해자·모델·촬영 등으로 구성된 ‘피해 담론’, 경찰·몰카·수사 등으로 구성된 ‘몰카 담론’, 혐의·편파·운영 등으로 구성된 ‘편파수사 담론’ 등이 도출되었다. 진보지에서는 평등·교육으로 구성된 ‘평등 담론’, 여성 혐오·피해자·사건·사회 등으로 구성된 ‘저항 담론’, 고인·살인·범죄·가해자 등으로 구성된 ‘페미사이드 담론’, 문제·페미니스트·미러·일베·차별·메갈리아·인터넷 등으로 구성된 ‘미러링 담론’, 시위·경찰·성폭력·수사 등으로 구성된 ‘편파 담론’ 등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수지에서 구성된 ‘혐오 담론’은 남성 혐오를 극단적인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즘으로 가장한 극단적인 혐오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담론으로, 남성 혐오 논란을 여성우월주의의 극단적인 페미니즘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반페미니즘 등으로 해석하였다. ‘가해자 담론’은 이수역 폭행 사건을 통해서

여성 혐오의 피해자임을 자처한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고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여성이 가해자임을 강조하는 담론이다. ‘피해 담론’은 홍대 누드모델 사건에서 큰 피해를 입은 남성은 남성 혐오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드러내고 있다. ‘위력 담론’은 여성 혐오에 저항하고, 남성 혐오를 표현하는 여성들의 행위가 온라인 또는 개인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권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담론이다. ‘극혐 담론’은 위마드를 남성 혐오 커뮤니티로 규정하고 위마드 회원들의 주장과 게시물들이 남성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드러내고 있음을 비판하는 담론이다.

진보지에서 형성된 ‘평등 담론’은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메갈리아나 위마드가 여성 혐오에 대응하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홍대 누드모델 촬영에 대한 편파 수사, 디지털 성범죄 등 구조화된 불평등과 성폭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담론이다. ‘여성 혐오 담론’과 ‘페미사이드 담론’은 여성 혐오가 강남역 살인으로까지 극대화 된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담론이다. ‘미러링 담론’은 여성 혐오에 대한 분노로 남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구조적 차별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는 담론이다. ‘편파수사 담론’은 홍대 불법 촬영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방식과 사건 처리 과정이 가해자가 남성일 때와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담론이다.

남성 혐오 논란과 관련해 보수지와 진보지 담론들 간의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담론들 간의 접합과 탈접합을 분석하였다. 보수지에서 제기한 ‘혐오 담론’은 남성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여성들

Table 3. Misogyny and misandry discourses

	Misogyny		Misandry	
	Conservative papers	Progressive papers	Conservative papers	Progressive papers
words	male, discrimination, social, feminism, violence, situation, words, movement, reason, problem, fact speech, rally, expression, feminist,	social, male, person, problem, words, talking, feminism, discrimination self, movement, equality, situation, culture, book, film, writing, controversy, life, reason, world feminist, world, fact, reality, writer, target, thought, voice, human rights	female, writing, internet, online, discrimination, misogyny, society, movement, article, controversy, expression, self feminism, content, reason, people, feminist, words, problem, broadcasting, propensity, crime, comment, situation	equality, education
Discourse	Feminism	Structure(Feminism + Disgust and Content + Distust and Narrative)	Disgust	Equality
words	investigation, controversy, writing, online, Ilbe, results, photo, violence, community, incident, claim, site, content, internet	sexual assault, violence	company, violence community	misogyny, people, words, society femlale, victim thoughts, incident
Discourse	Online conflict	Violence	Perpetrator	Misogyny
words	crime, victim	crime, incident, murder, victim	demonstration assembly	deceased, murder, crime, world, reason, perpetrator
Discourse	Incident	Incident	Power	Femicide (Misogyny + Perpetrator)
words	story, culture, people, self	politics, citizens, representative	member, appeal, picture, site, bulletin, incident, post	problem, writing, violence, feminist, mirroring, speech, movement, Megalia, feminism, controversy, Ilbe, way, fact, discrimination, community, culture, site, picture, voice, online, internet, expression, reality, self, writer, page
Discourse	Disgust and Content	Civic Movement	Geukhyum	Mirroring (Misogyny + Equality)
words	book, writer, representative, professor	Trump, President	punishment, victim, model, shooting, class	demonstration, police,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Discourse	Distust and Narrative		Damage	Partiality
words	words, candidate, Trump	minority, expression, speech, professor	police, Molka, investigation	
Discourse		Human Rights	Molka	
words	national assembly, people, politics, minister	student, school, child, education	suspect, partiality, management	
Discourse	Politics	Education	Partiality	

이 혐오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담론이다. ‘혐오 담론’은 진보지가 구성한 남성 혐오 발언이 여성 혐오에 대한 저항적 의미라고 주장하는 ‘저항 담론’에서 여성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진보지의 ‘(여성) 피해 담론’을 탈접합시키고, 보수지가 제기하는 남성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남성) 피해 담론’을 재접합시킨 담론이다. 반면, 진보지의 ‘미러링 담론’은 가부장제 역사와 제도가 만들어 낸 차별적 관행, 언어, 태도, 감정 등을 고발하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타자화한다는 ‘여성 혐오’ 담론에 구조화된 불평등과 성폭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평등 담론’을 접합시킨 담론이다.

남성 혐오와 관련해서 보수지는 혐오가 또 다른 혐오를 낳는다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남성들의 피해를 부각시키는 담론 전략을 보였다. 반면, 진보지는 여성 혐오에 대한 의도적 모방인 미러링을 통해 관습화된 여성 혐오의 일상성을 비판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담론들의 사회문화적 실천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 보수지는 여성 혐오 논란을 사건 사고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온라인 갈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담론적 실천을 통해서 보인 담론 전략은 여성 혐오 논란과 관련해서 개별적 사건에 집중하는 개별화 전략을 보였다. 반면, 진보지의 경우는 여성 혐오 논란을 차별적인 사회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여성 혐오를 일상화시키고 재생산하는 문화 콘텐츠, 서사 등으로 비판을 확장시키는 포괄적 전략을 보였다.

이러한 담론적 실천 분석에 근거해서 담론들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한 결과, 보수지의 ‘사건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진보지의 ‘구조 담론’이 경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 ‘사건 담론’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여성 혐오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여성계에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조현병 환자의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 차별적 사회 구조에 기인한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범죄 사건으로 한정짓는 보수적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사건 담론’의 대항 담론으로서 ‘구조 담론’은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에 기반한 페미니즘으로 규정하면서, 여성 차별적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든지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여성 혐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수지의 ‘사건 담론’과 대항 담론으로서 ‘구조 담론’ 간의 경쟁은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해석함에 있어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일상화되고 관습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반(反)여성 혐오’와 여성 혐오 관점에 매몰되어 조현병 환자의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반(反)여성 혐오 관점’ 간의 대립으로 해석된다. 즉, 반여성 혐오와 반여성 혐오관점의 대립은 가부장제의 일상화와 관습화에 대한

거부 또는 해체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일상화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든 여성 혐오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 여성 혐오를 고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보는 시각을 반동(反動)시하며 수사와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전도(顛倒)도 벌어졌다.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 앞에서 ‘여성 혐오 반대’라는 피켓을 든다고 강남역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 조현병 환자 관리는 한편으로는 사회를 조현병 환자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 조현병 환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사회가 관심을 모아 대책을 세워도 부족할 판에 더는 초점을 흐리지 말자.

– “강남역 살인사건 1년” (동아일보, 2017. 5. 18)

이번 ‘강남역 문지마 살인’은 사실은 조현병 환자의 피해망상으로 인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를 ‘여성 혐오의 결과’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국에서 조승희가 수십 명을 총으로 쏘고,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해도 미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혐오감 표출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개인 문제로 여겼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여성 혐오증과는 다르다. 명백히 ‘피해망상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인 것이다. 정신분열병(조현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망상이며, 피해망상은 누군가가 내게 피해를 주려고 한다는 절대적 믿음이다.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극도의 열등감, 여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 좌절 등이 복합돼 갖게 된 망상으로 생각된다.

– “강남역 사건 본질은 의료 시스템 문제” (조선일보, 2016. 5. 24)

평소 내가 무시해 온 “여자들이 감히 나- 남자를 무시”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한 표현은 우월적 지위의 상징이자 도구이며, 폭력적 대응을 동반하기에 문제적이다. 그렇기에 많은 여성들은 이 사건을 여성 혐오에 기반한 살인(misogynist murder)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야만 차별적 사회에서 무수히 ‘죽은 자, 죽을 자, 죽을 수 있는 자’와 비대칭적 위계관계에 있는 ‘죽인 자, 죽일 자, 죽일 수 있는 자’의 위치를 또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강남역에서 보내는 시그널” (한겨레, 2016. 5. 26)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 17일 다시 포스트잇이 붙었다. (...) 흰 국화를 그 아래에 놓고 강남역 사거리를 지난 후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여성 혐오와 성차별, 여성폭력을 용기 있게 밝히겠다는 의지였다. (...) 이들은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며 “그럼에도 사회는 아직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발생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젊은 남성들도 눈에 띄었다. 대학생 김 모 씨는 “사건 전 여성차별과 혐오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여성차별과 혐오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성 혐오 성차별 해결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경향신문, 2017. 5. 17)

Table 4. Discursive struggles on misogyny

Incident Discourse		Structure Discourse
Gangnam station murder is a crime caused by a schizophrenic.	Data	The victim of the Gangnam station murder was killed because she was a woman.
The schizophrenia patients are not managed systematically.	Warrant	Misogyny is based on women's discriminatory structures.
The society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crime of schizophrenia.	Claim	The murder case at Gangnam Station is misogynistic.

남성 혐오 논란과 관련한 담론들 중 적극적으로 담론적 실천을 보인 담론은 보수지의 경우 '(남성) 혐오 담론'으로, 진보지가 제기한 '저항 담론'에서 '(여성) 피해 담론'을 탈접합시키고 '(남성) 피해 담론'을 재접합시킨 담론이다. 남성 혐오와 관련하여 보수지는 남성들이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는 피해 전략을 통해서 가해자로서의 여성과 피해자로서의 남성을 대립시켰다. 반면, 진보지에서 적극적으로 담론적 실천을 보인 담론은 '미러링 담론'이다. 이는 보수지의 '여성 혐오' 담론에 차별적 구조와 언어적 관습을 해체하고자 하는 '평등 담론'이 접합된 담론으로 평등화 전략을 통해서 남성 혐오 표현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방어하고자 했다.

이러한 담론적 실천 분석에 근거해서 담론들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한 결과 보수지의 '(남성) 혐오 담론'과 진보지의 '미러링 담론'이 경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성 혐오 발언에 대해서 보수지는 '혐오 담론'을 통해 남성 혐오 발언을 하는 여성들은 여성들이 받아온 차별을 되돌려주자고 하지만, 모든 남성이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남성

을 향한 혐오는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진보지는 '미러링 담론'을 통해 남성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는 여성 혐오와 같은 차별적 구조에 기인한 남성 혐오가 아니라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일 뿐이라고 대응하였다.

대립하는 두 담론은 모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근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혐오 담론'에서는 우리 사회 가부장제에 근거한 여성 차별적 구조를 인정하지만, 모든 남성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미러링 담론'은 차별적 구조에 근거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발언'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여성 우월적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 혐오가 아니라 남성 혐오 발언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담론으로, 가부장제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 '(남성) 혐오 담론'과 '미러링 담론'의 경쟁 또는 대립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적 인정과 전면적 거부 또는 차별적 구조에 대한 부분적 인정 또는 전면적인

거부 간의 대립이다.

위마드는 남성 혐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이트로, 페미니즘 사이트 ‘메갈리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녀·된장녀 등 여성 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사이트인 메갈리아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혐오와 차별을 되돌려주겠다며 ‘미러링(mirroring·혐오 뒤집어 보여 주기)’을 표방했지만, 현재는 회원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다. 대신 보다 극단적인 성향의 회원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 위마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위마드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과 얽히며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 “위마드,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문 대통령 합성·성체 훼손… 뭘 원하기에?” (동아일보, 2018. 7. 11)

과도한 미러링과 남성을 향한 공격은 남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성차별 논란이 성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위마드 등을 주도하는 여성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여성차별을 넘어선 여성 혐오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젊은 남성들은 아직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남성 전체를 기득권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변한다. 또한 당장 여성의 대학 진학률 등 주요 지표가 남성을 앞지르는 사례가 많은 만큼 미러링 형식의 여성운동은 이제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반박한다.

– “2018년 미러링과 페미니즘은 무엇을 이루었나” (동아일보, 2018. 12. 29)

미러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을 ‘한남

충’이라 부르는 등 거친 언어로 이루어진 미러링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참다못해 터트린 비명과도 같다. (...) 판사가 성폭행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나라. 성범죄의 원인을 여성의 ‘짧은 치마’나 ‘늦은 귀가’에서 찾는 나라. 국가가 나서서 출산율을 걱정하지만 정작 육아휴직을 쓰면 그대로 해고당하는 나라. 한국 여성들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 (...)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은 이처럼 끔찍하리만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 “바람계곡의 페미니즘” 인터뷰 (한겨레, 2016. 10. 14)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려면 그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대접받고 말해지는가를 보라는 조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메갈리아의 발언이 품위 없어 보인다면, 한국사회가 여성을 품위 없게 말하기 때문이다. 메갈리아의 폭력적 성향은 여성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폭력적 태도를 미러링한 것이다. 메갈리아의 언어 구사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천박해서 공감할 수 없다면, 혹 여성들의 투쟁과 저항마저도 ‘여성답기’를 바라는 속내 때문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마는, 또 꽤 닮았소.’(이상, ‘거울’)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더럽게 보인다면, 깨끗하게 씻어라. 거울이 나를 추하게 비춘다고 거울을 탓할 일이 아니다.

– “메갈리아는 거울이다” (한겨레, 2016. 8. 31)

Table 5. Discursive struggles on misandry

Disgust Discourse		Mirroring Discourse
Hate speech against men is controversial.	Data	Hate speech against men is controversial.
Although women say they should return the discrimination, not all men have vested interests.	Warrant	There is misandry in our society based on the discriminatory structure.
Disgust towards men is unfair.	Claim	Hate speech towards men is a mirroring for misogyny.

결론과 제언

혐오는 죽음, 부패, 그리고 질병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인간 자신이 지닌 동물성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관련되며, 동물성의 유한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이다(Rozin et al., 1999). 사회적 주체가 경험하게 되는 혐오는 타자에 대한 거부감이다. 여성 혐오는 가부장제 역사와 문화 제도가 만들어 낸 관행으로, 여성 차별적인 젠더 질서 내에서 여성 멸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남성 혐오는 남성 차별적인 젠더 질서 내에서 남성에 대한 멸시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여성에게 차별적인 가부장제와 같은 젠더 질서가 존재하지만, 남성에게 차별적인 젠더 질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 혐오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성 혐오란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으로서 차별적 젠더 질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시작으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그리고 2018년 홍대 누드모델 사건에 이르기 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둘러

싼 미디어 담론들을 도출하고, 미디어의 정치적 지향에 따른 담론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담론을 관습화시키는 전략과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파악해 혐오와 관련한 담론과 권력 관계를 해석하고자 했다. 분석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결합해, 텍스트 분석, 담론적 실천 분석,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으로 세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텍스트 분석에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전체 텍스트를 토픽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3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30개의 주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사건과 범죄, 생각과 사람, 워마드와 몰카, 자신과 문제, 사회와 문화, 여성 혐오, 글과 사건, 혐오 표현, 댓글, 문학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각 주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보수지에서는 글과 폭행, 사건과 범죄, 댓글, 워마드 등의 주제가 진보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진보지에서는 생각과 사람, 자신과 문제, 정부와 정책, 집회와 시위, 문학, 메갈리아와 미러링 등의 주제가 보수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보수지는 진보지에 비해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관련해서 사건을 더 많이 다루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진보지는 보수지에 비해서 사회적 문제와 정책 주제에 대한 접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의 의미 중심을 이루는 단어를 분석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텍스트를 정치적 성향과 여성, 남성 혐오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상위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각각 50개 분석해서, 네 개 그룹의 단어들 간의 수렴 상관관계를 분석해 담론을 도출하였고, 담론 간의 탈접합을 분석해 담론 전략을 파악하였다.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보수지에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담론을 구성하였고, 문화, 문학 콘텐츠와 관련한 담론들을 구성했다. 반면, 진보지는 여성 혐오를 사회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보수지의 페미니즘, 문화, 문학과 관련한 담론들을 접합시켜 구조 담론을 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혐오와 관련해서 보수지는 혐오, 가해자, 위력, 극혐 등의 담론을 구성하면서 남성 혐오의 가해자로서 여성과 피해자로서의 남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기존의 여성 혐오의 가해와 피해의 위치가 전도된 것에 주목하는 담론들이다. 진보지에서는 이러한 혐오의 주체와 대상이 바뀐 것을 미러링으로 규정하면서, 남성 혐오가 여성 혐오와 같이 사회적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남성 혐오 논란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사회적 실천 분석에서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별로 담론들 간의 경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는 보수지의 사건 담론과 진보지의 구조 담론이 경쟁하였고, 남성 혐오 관련해서는

보수지의 혐오 담론과 진보지의 미러링 담론이 대립하였다. 그리고 경쟁하는 담론들에는 이데올로기로서 가부장제에 대한 부분적 수용 또는 거부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00여 년에 걸쳐 형성된 역사적 창조물로서 가부장제는 사회의 계급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었고, 이렇게 구분된 계급은 사회적 구조를 고착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즉, 가부장제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둘러싼 담론들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사회인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차별적 구조로서 여성 혐오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인터넷상에서 혐오 발성의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키면서 남성 혐오 표현으로 거칠게 표출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남성 혐오에 대한 논란은 혐오 대상으로서의 경험이 없었던 남성들과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 연구의 시작은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문제의식을 갖고 혐오를 둘러싼 인식의 지형도를 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비판적 담론 분석이라는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틀로 분석하였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이 사회인지적 요인들과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행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담론의 기능 때문에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는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판적 담론 분석 접근에서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 행위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

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논란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 표현들의 대립이 아니라 심층적인 구조에 기인하는 사회 인지적 요인들 간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일상성을 해체하려는 담론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일상성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담론들 간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은 이러한 담론들 간의 대립을 대리했다고 할 수 있다.

PR 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 패러다임에서 접근할 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성 혐오, 여성 혐오와 사회적 의제들은 담론으로 구성되고, 구성된 담론들은 담론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해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공중의 지지를 확보하게 된다. 공론장에서 경쟁하는 담론들 중 공중과 의미를 공유한 담론은 헤게모니를 구축하면서 사회 질서를 재편한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와 같은 사회적 의제로 구성된 담론들은 공론장에서 대립과 경쟁을 하면서 젠더와 혐오와 관련된 사회적 현실을 정의하면서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을 대변하는 PR 커뮤니케이션은 담론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의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을 감소시키고 합의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 분석의 이론적 틀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해서 분석을 시도했다.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토픽 모델링을 통해 30개 주제를 도출하고 전체

수집된 자료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했다. 그리고 담론을 도출하고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에서 빈도수가 높은 주요 단어 50개를 추출해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톨민의 논증 분석을 통해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 분석이 제시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양적인 방법을 적용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지만, 분석의 엄밀성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보완이 요구된다.

먼저 토픽 분석을 통한 텍스트 분석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전체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해 30개의 토픽을 도출했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토픽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혐오’ 키워드로 수집된 기사들이 ‘혐오’의 맥락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혐오’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차 토픽 분석 결과에서 설명 비중이 높은 토픽들을 선별하고, 이 토픽들과 관련성이 높은 기사들을 추려서 2차 토픽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분석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분석 대상 언론사 수를 늘림으로써 담론적 실천 분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 혐오 기사의 수가 여성 혐오에 비해 1/5 수준인 300여 건으로 나타나, 분석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이유로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언론 각 진영 간의 탈접합 분석에만 그치고 진영 내에서의 탈접합을 분석하지 못했다. 담론의 변화를 파악

하는 담론적 실천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한계점은 자료 수집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수를 추가

해, 분석 대상인 기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hoi, J. (2018). Is it possible for women to hate men?: A male cultural sociologist's response to a question raised by Ji Yeong Yun, a feminist philosopher. *Culture and Society*, 26(3), 7-60.
- Doerfel, M. L., & Connaughton, S. L. (2009). Semantic networks and competition: Election year winners and losers in US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1960-2004.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0(1), 201-218.
- Dozier, D. M., & Lauzen, M. M. (2000). Liberating the intellectual domain from the practice: Public relations, activism, and the role of the scholar.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2(1), 3-22.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UK: Polity Press.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UK: Longman.
- Gilmore, D. D. (2010). *Misogyny: The male malad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Gordon, J., & Pellegrin, P. (2008). Social constructionism and public relations. In T. L. Hansen-Horn & B. D. Neff (Eds.), *Public relations: From theory to practice* (pp. 104-121). Boston, MA: Pearson.
- Han, J. (2018).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news articles on nos. 5 and 6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Focusing on Hankyoreh and Chosun-Ilbo. *ECO*, 22(2), 145-175.
- Hansen, D., Shneiderman, B., & Smith, M. (2009). Analyzing social media networks: Learning by doing with NodeXL. *Computing*, 28(4), 1-47.
- Johnson, A. G. (2005). *The gender knot: Unraveling our patriarchal legacy*. Temple University Press.
- Kim, J. (2017). *Disgust*. Seoul: Eunhaengnamu.
- Kim, S. (2015).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in Korea. *Issues in Feminism*, 15(2), 279-317.
- Kim, S., Kim, D., & Choi, M. (2013).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studies in Korea: Using Key words in *Advertising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Th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and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5(1), 59-85.
- Kim, Y. (2012). Public relations as discourse struggles: A new paradigm and setting the direction of theory development. *Communication Theories*, 8(1), 352-386.
- Kim, Y. (2013). *Evolution of PR communication theory*. Seoul: CommunicationBooks.
- Kim, Y., Ham, S., & Kim, Y. (2017). Media discourse analyses on the sewol ferry incident: The methodological integration of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using newspaper big dat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3, 7-38.
- Kim, Y., Ham, S., Kim, Y., & Choi, J. (2017).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a social issue: Focusing on the THAAD deployment big data analysis. *Communication Theories*, 13(4), 40-91.
- Kim, Y., Kim, Y., & Kim, S. (2008). The structure of produc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in Korean communication studi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1), 117-140.
- Kruckeberg, D., & Starck, K. (1988). *Public relations and community: A reconstructed theory*. Praeger Publishers.
- Lee, S. (2014). *Network analysis methods*. Seoul: Nonhyung.
- Lerner, G. (1993). *The creation of feminist consciousness: From the middle ages to eighteen-seventy* (Vol. 2).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Newmann, M. (2010). *Network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W. I. (1997). *The anatomy of disgust*.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Nussbaum, M. C. (2010). *From disgust to humanity: Sexual*

- orientation and constitutional law*.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D. (2018). The types, use, and meanings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2, 273-304.
- Rice, R. E., & Danowski, J. A. (1993). Is it really just like a fancy answering machine? Comparing semantic networks of different types of voice mail users.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0(4), 369-397.
- Roper, J. (2005). Symmetrical Communication: Excellent public relations or a strategy for hegemony?.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7(1), 69-86.
- Rozin, P., Haidt, J., & McCauley, C. R. (1999). Disgust: The body and soul emotion.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 429-445). Chichester, UK: John Wiley.
- Sedgwick, E. K. (1985).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in, E. (2017). Disgust and domination.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43, 189-214.
- Sowa, J. F. (1984). *Conceptual structures: Information processing in mind and machine*. Reading, MA: Addison Wesley
- Stephens, W. N. (1962). *The Oedipus complex: Cross cultural evidence*. New York, NY: Free Press.
- Ueno, C. (2010). *Onna Girai- Nippon no misogyny*. Tokyo, JP: Kinonuniya.
- Van Ruler, B., & Dejan, V. (2005). Reflective communication management, future ways for public relations research.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9(1), 239-274.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Vol. 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un, B. (2013). Ilbe and misogyny. *The Radical Review*, 57, 33-56.
- Yun, J. (2015). Megalian controversy as a revolutionary mirror: Is it possible man-hating?. *Korean Feminist Philosophy*, 24, 5-79.
- 최초 투고일 2019년 08월 10일
 논문 심사일 2019년 09월 23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29일

Analysis of Discourse on Misogyny and Misandry in Media Reports

Combining Language Networks wit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eungkyung Ham

Lecturer,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Jimyoung Choi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Language & Informatics, Yonsei University**

Yungwook Kim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media reports related to misogyny and misandry as a framework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ethods

The data analyzed included about 1700 articles. Topic modeling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were us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all the text by topic modeling, 30 topics were analyzed. After analyzing the discursive practice of misogyny, discourses on feminism, online conflict, events, disgust and content, and disgust and narratives were analyzed in the conservative papers and discourses on structure, violence, events, and civic movements were analyzed in the progressive papers. After analyzing the discursive practice of misandry, discourses on disparity, dislike, perpetrator, power, phobia, and damage were analyzed in the conservative papers and discourses on women's dislike, femicide, mirroring, and bias were analyzed in the progressive papers.

Conclusions

In analyzing the social practice of discourse, competing discourses were analyzed to have opposition to and against patriarchal ideology.

KEYWORDS hate, misogyny, misandry, network analys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First Author: hamseungkyung@gmail.com

** Second Author: amancio.choi@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kimyw@ewha.ac.kr